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홍보

조경장 기자 | 승인 2026.02.11 15:24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지사장 서기수)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을 홍보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지사장 서기수)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을 홍보했다.

11일 군산지사는 대야시장과 인근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방문해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이란 고령 농업인이 농지를 매도하고 농업에서 은퇴 할 때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만65세 이상 84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영농경력을 가진 농업인의 3년 이상 보유한 농업진흥지역 및 농업진흥지역밖의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논, 밭, 과수원)를 대상으로 한다.

농지를 매도해 이양하는 방식(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는 방식과 전업농에게 직접 매도하는 경우도 가능)과 은퇴직불형 농지연금(농지은행에 농지를 임대하고 연금지급 기간이 종료되면 농지를 공사에 매도하는 조건)에 가입해 직불금을 받는 두 가지 방법 중 선택을 할 수 있다.

직불금 지급은 최대 10년간 84세까지로 '농지를 매도하는 상품'의 경우 1ha당 매월 50만 원씩 최대 4ha(200만 원)까지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상품'의 경우 1ha당 매월 40만 원씩 최대 4ha(160만 원)까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고령 농업인이 이양한 농지는 청년농업인에 우선적으로 제공해 경영규모 확대 및 미래농업 준비를 위해 활용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서기수 군산지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고령 농업인의 노후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고령화로 인한 소멸 위기의 농촌에 청년 농업인의 유입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농업의 세대교체와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조경장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경장 기자